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그 개선방안\*

— 제주시 한림읍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 일 방\*\*

###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시행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은 제주시 한림읍 지역주민들이며, 연구 방법은 설문지법을 적용하였다. 설문지를 통하여 얻은 응답들에 대해서는 SPSS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인식 및 시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는 ‘필요하고도 유용하긴 하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미완의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획기적 방안이 요구되며,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실천 위주의 환경교육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한림읍과 지역주민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한 정기적인 쓰레기 분리 배출 교육, 지속적인 참여 자세 독려 및 동기 유발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쓰레기정책의 우선순위를 재활용에만 둘 것이 아니라 감량과 재사용 정책에도 동등한 비중을 두고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주제어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주민의식, 환경교육, 재활용, 감량 및 재사용

---

\* 이 글은 2019년 11월 15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학회 주최 제50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초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제주대학교 교수

## I. 서론

산업사회가 진전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상생활 중에서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도 많아졌다. 다양한 물질의 이용은 인간의 편의를 증대시켜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증가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폐기물의 증가는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처리시설은 제한적인데 비해 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급증함으로써 처리 비용이 치솟고 있고 이는 다시 전국 곳곳에 폐기물의 불법 방치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제주 지역 역시 예외이지 않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는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쓰레기 처리 시설과 행정체제는 미비한데 상주인구와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가정, 관광업소, 건축 현장, 농가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쓰레기 소각장은 하루 종일 가동해도 용량 초과로 인해 근처 야적장에다 소각용 쓰레기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 능력의 한계로 오폐수가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 방류되고 있고, 해안가 또한 각종 폐기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곳은 제주도 당국이라 할 것이다. 사실 제주도는 생활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자 2006년부터 클린하우스제도<sup>1)</sup>를 도입하여 운영해왔다. 제주도 전역에 걸친 2400여 곳에 클린하우스, 곧 쓰레기 분리 배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온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량의 급증으로 클린하우스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주민의식도 미약하여 분리 배출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에 제주도는 2016년 11월, 제주시는 2016년 12월 1일부로, 서귀포시는 2017년 1월 1일부로 생활폐기물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요일엔 플라스틱류, 화요일엔 종이류, 수요일엔 캔·고철류, 목요일엔 스티로폼 및 비닐류 등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로 배출항목을 설정하여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원래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생활쓰레기는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70%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이는 제주도가 직면한 과다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주도 당국의 깊은 고심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따라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업을 결여한 탓으로 많은 반발을 불러왔고 더 불어 몇 차례의 수정을 겪는 파란중첩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한림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인식 및 시행 실태를

1) 클린하우스란 공원, 놀이터, 주차장 등 일정한 거점 수거지에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의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를 갖추어 자동 상차식 차량으로 수거, 처리하는 쓰레기 수거방식을 가리킨다. 재활용률 제고, 도시미관 개선, 행정비용 효율화 등을 위해 제주시가 200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분석하고자 하는 배경적 사유는 이러하다.

첫째는 제주시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요일별 배출제의 쓰레기 감소 효과가 낮은 이유가 궁금하다는 점 때문이다. 제주도의 조사에 따르면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가?” 하는 설문에 제주시민은 긍정(32.6%)보다 부정 응답(38.9%)이 높았다. 이 응답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제주시 동지역은 긍정이 34.8%, 부정이 38.6%인 반면, 제주시 읍면지역은 긍정이 30.7%, 부정이 44.3%로 나타났다(제주도, 2019b: 571). 요일별 배출제의 쓰레기 감소 효과에 대해 동지역 주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읍면지역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읍면지역의 경우 동지역보다 요일별 배출제를 준수하기가 여건상 쉽지 않은 만큼 이 제도에 대한 읍면지역 주민의 의식을 살펴보는 것이 이 제도의 실상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읍면지역의 경우는 클린하우스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농어업 종사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동지역에 비해 생활쓰레기를 요일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제주시 읍면지역 중 한림읍을 선정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인식 및 시행 실태를 분석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시행 배경 및 과정

제주도의 요일별 배출제는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한 달 빠른 2016년 12월 1일부터 먼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시범 운영 안내문을 보면 이 제도의 시행배경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요일별 배출제의 시행 전에는 봉개동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청소차량이 매립장 진입을 위해 3시간 이상 대기하고, 1일평균 220톤 이상 반입되는 가연성 쓰레기는 130톤만 소각하고 나머지 90톤 정도는 고형연료화 하여 보관하다가 1톤에 16만 5천 원씩 연간 50억씩 비용을 들여 육지부 소각장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1일 처리용량 110톤을 초과하는 150톤이 반입되어 소멸화 및 퇴비화하고 있으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일별 배출제는 시민들이 쇼핑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초기단계부터 시장바구니를 이용하여 종이박스, 비닐 등 포장지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사회 문화정착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나가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제주시 생활환경과 새소식, 2017. 1. 17).

위 내용을 토대로 요일별 배출제의 시행 배경을 재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쓰레기량의 급증으로 인해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매립장은 총 9곳(회천, 서부, 동부, 색달, 남원, 표선, 성산, 우도, 추자도)이다. 이 중 우도와 추자도 매립장을 제외한 7곳의 매립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곳 모두가 포화상태로 잔여 매립공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제주시에 서 운영 중인 회천, 서부, 동부 매립장의 경우는 잔여 매립공간이 없음에도 계획된 매립량을 초과한 매립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 매립장 4곳 역시 잔여 매립량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색달 4%, 남원 8%, 표선 7%, 성산 3%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 2019: 1-2).

둘째는 가연성 쓰레기의 급증으로 소각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두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sup>2)</sup> 하나는 남아도는 가연성 쓰레기를 고형연료화 하여 보관하다가 육지부 소각장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각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소각하지 못한 나머지 매립장으로 다시 보내져 매립장 포화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제이다.

셋째는 제주도민의 시민의식 결여이다. 쓰레기종량제<sup>3)</sup>가 도입(1995)된 지 20여년, 클린하우스제도가 시행(2006)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가장 기본적인 분리배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클린하우스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한 요인이 되어왔다. 종량제 봉투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다 해도 가연성 쓰레기·재활용 쓰레기·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 배출한다든가, 무단투기행위 등이 만연하여 쓰레기 처리에 많은 문제를 낳아왔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자원순환형사회로 나아가고자 도입한 것이 요일별 배출제이며, 어느덧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약 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 동안 이 제도의 운영 과정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다. 이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행돼왔다는 의미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은 총 네 가지, 곧 ①매립장, ②소각장, ③재활용 선별장, ④음식물 폐기처리시설 등이 있다. 이 네 시설은 모두가 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처리 능력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각장 처리 능력은 당초 270톤임에도 쓰레기 성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 190여 톤밖에 소각하지 못함으로써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은수, 2017: 79).

3)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 배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정확한 정책명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이다. 종량제 적용 대상 폐기물은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배출자는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이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시행은 1995년 1월부터 이루어졌다.

2010년대 중반 제주가 직면한 쓰레기 대란을 해결해보고자 제주시가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은 100인 모임 구성이었다. 이 모임의 정식 명칭은 ‘제주시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실천 과제 선정 100인 모임’이었으며, 공식 출범일은 2016년 8월 31일이었다(제주의 소리, 2016. 8. 31).

100인 모임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2016년 10월 27일에는 쓰레기 감축을 위한 실천 아젠다를 최종적으로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정책과제 12건, 행정 제안의제 5건, 실천과제 12건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뉴시스, 2016. 10. 27).

제주도는 100인 모임의 제안사항을 기초로 2016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였고, 더불어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발표하여 제주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서귀포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 요일 당 제품군 한 가지씩 오후 6시에서 자정까지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24시간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요일별로 배출 가능한 쓰레기와 시간을 제한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범 운영한지 일주일 만에 야간업소와 급식소 등에서 배출시간이 영업시간에 맞지 않다며 조정을 거세게 요구함에 따라 오후 3시에서 익일 새벽 4시로 배출시간을 2016년 12월 9일부로 변경하였다. 쓰레기를 24시간 자유롭게 버리던 방식에서 배출 요일과 시간이 갑작스럽게 제한되자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요일별 배출제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량의 80%가 넘을 만큼 폭주했다는 사실이 당시의 분위기를 입증해주고도 남는다(Ohmy News, 2016. 12. 23). 급기야 이 제도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은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구성하고, 2017년 1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제주의 소리, 2017. 1. 6). 더불어 이 시민모임은 1월 13일, 이 날을 ‘제주시 쓰레기정책 시민 저항의 날’로 선포하고 제주 시청 인근 분리수거함에다 ‘쓰레기산 퍼포먼스’를 벌이며 불만을 표출하기까지 했다(Ohmy News, 2017. 1. 14).

제주도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주도가 부랴부랴 내세웠던 것이 ‘토론회’였고 그 개최 근거는 요일별 배출제의 개선방안 마련이었다. 제주시민토론회(2017. 2. 4), 서귀포시민토론회(2. 27), 종합토론회(3. 2)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개선하여 3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칭의 변경과 함께 개선의 핵심은 대부분의 품목을 주 1-2회 배출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배출 횟수를 2-3회로 늘림으로써 주민들이 쓰레기를 집안에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제주의 소리, 2017. 3. 6).

이와 같이 요일별 배출제는 시범 운영된 지 약 일주일 만에 배출 시간대가 바뀌고, 약

3개월 만에는 제도의 명칭 및 내용까지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행돼오다 시범운영기간(2016. 12. 1-2017. 6. 30)을 마치게 된다. 이러한 종료와 더불어 요일별 배출제는 201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본격 시행’이란 이 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시 법적 제재력이 발휘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곧장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에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은 제도기간을 갖기로 하였다. 이 기간에는 안내와 홍보에 집중하고 위반 시에는 계고장 발부를 통해 준수를 권고하며 과태료 부과는 10월부터 적용해나갔던 것이다(제주의 소리, 2017. 6. 29).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만 1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2월 20일, 제주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1주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요일별 배출제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부침이 있긴 하였지만 지금은 도민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자체평가를 내렸다. 꾸준히 증가하던 쓰레기량이 매립량과 소각량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반면 재활용품 수거는 늘었다는 것이다(제주의 소리, 2017. 12. 20).

이러한 제주도의 발표와는 달리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선 이 제도에 대한 불만과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다시금 제도에 수정을 가하였다. 2018년 4월 1일부터 대폭 손질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그 이후 오늘에까지 이 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안의 주 내용은 배출 시간대는 그대로 유지하되 재활용품 중 병, 스티로폼, 캔·고철류는 매일 배출, 플라스틱과 종이류는 격일 배출제로 바꾼 것이었다(제주의 소리, 2018. 3. 22).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이 다 되어가던 무렵인 2018년 12월 18일, 제주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2주년 보고회’를 열었다. 이 보고회에 따르면 “요일별 배출제의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폐기물 매립량은 22% 감소한 반면, 재활용품 수거량은 14% 증가하였다.”(헤드라인제주, 2018. 12. 18).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해온 2년간의 쓰레기 처리 상황을 분석한 결과 매립량은 줄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1주년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2주년 보고회에서도 긍정적 효과만을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의견은 그와 사뭇 다른 실정이다. 제주도의 발표와는 달리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훌쩍 지났으나 정착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 2. 선행연구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약 3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시민생활 속에 완전하게 뿌리

를 내렸다고 보기는 무리라 여겨진다. 이 제도에 대한 평가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고, 쓰레기의 감소 효과 또한 원래의 목표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이 제도가 지닌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게 현 상황이다. 요일별 배출제 관련 연구가 있다면 두 편 정도를 들 수 있는데 한 편은 김은수(2017)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고, 다른 한 편은 김일방(2019)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공과와 환경교육 중심의 개선방안이다. 전자는 필자가 제주도 생활 환경과 주무관이고, 글의 내용은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배경과 현재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홍보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는 요일별 배출제 관련 첫 번째 학술논문으로 여겨진다. 그 내용은 그 동안 시행 되어온 요일별 배출제의 공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환경교육 중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논문은 위 두 편과 성격이 다르다. 위 두 편이 문헌연구라 한다면 본 논문은 방문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위 두 편과 달리 제주시의 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나 그 이외의 지역에는 별다른 기여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지역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개혁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여겨지기에 이와 같은 류의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한림읍 지역주민들이다. 한림읍은 제주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31km 떨어진 지역으로 서부지역 상권 및 유통의 중심지로서 도·농복합 형태의 소도읍이다. 읍면지역에서의 요일별 배출제는 제주도 동지역과 달리 그 효과를 보기가 더 어려운 여건에 있다. 클린하우스가 주거공간과 멀리 떨어져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생업에 더 바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읍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여건에서 연유한다. 제주도 동지역보다 요일별 배출제의 실행이 더 어

려운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 제도의 실태를 더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한림읍은 총 21개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비양리’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양리는 독립된 섬마을로 거기까지 오가는 과정은 물론 설문조사의 현실적 어려움 탓에 제외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한림읍의 총 세대수는 10,521세대이며<sup>4)</sup> 이 중 약 3%인 315세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세대별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에 임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이 어느 한 마을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된 315세대는 각 마을의 세대수 대비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연구 대상자인 315세대로부터 전부 회수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40부는 제외하여 총 275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      | 구분    | 빈도(%)      | 구분  | 빈도(%)      |
|------|-------|------------|-----|------------|
| 성 별  | 남자    | 110(40.0%) | 여자  | 165(60.0%) |
| 나 이  | 20대   | 23(8.4%)   | 50대 | 63(22.9%)  |
|      | 30대   | 35(12.7%)  | 60대 | 22(8.0%)   |
|      | 40대   | 106(38.5%) | 70대 | 26(9.5%)   |
| 마 을  | 귀덕1리  | 16(5.8%)   | 상대리 | 4(1.5%)    |
|      | 귀덕2리  | 6(2.2%)    | 동명리 | 16(5.8%)   |
|      | 귀덕3리  | 4(1.5%)    | 명월리 | 10(3.6%)   |
|      | 수원리   | 33(12.0%)  | 금악리 | 16(5.8%)   |
|      | 한수리   | 7(2.5%)    | 상명리 | 5(1.8%)    |
|      | 대림리   | 27(9.8%)   | 월림리 | 6(2.2%)    |
|      | 한림1리  | 34(12.4%)  | 웅포리 | 16(5.8%)   |
|      | 한림2리  | 32(11.6%)  | 금능리 | 8(2.9%)    |
|      | 한림3리  | 2(0.7%)    | 협재리 | 27(9.8%)   |
|      | 강구리   | 3(1.1%)    | 월령리 | 3(1.1%)    |
| 주거형태 | 단독주택  | 168(61.1%) | 아파트 | 38(13.8%)  |
|      | 빌라    | 56(20.4%)  | 기타  | 13(4.8%)   |
| 직 업  | 농·어·업 | 69(25.1%)  | 공무원 | 17(6.2%)   |
|      | 자영업   | 96(34.9%)  | 기타  | 51(18.5%)  |
|      | 회사원   | 42(15.3%)  |     |            |

4) 한림읍행정복지센터 <http://www.jejusi.go.kr/town/hanlim.do>(2018년 8월 검색).

## 2. 검사 도구 및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이다. 설문지는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네 영역이란 (1) 쓰레기 문제에 관한 인식, (2)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인식 및 시행 실태, (3)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만족도 및 유용성, (4) 개선방안 등을 가리킨다. (1), (2), (3)을 통해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실행 실태,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4)를 통해선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각 영역별로 작성한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표 2>와 같다.

설문지를 통하여 얻은 결과에 대해선 SPSS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모든 문항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답변을 퍼센트로 계산하여 나타냈다.

**<표 2> 설문지 문항 내용**

| 영역                                   | 문항 내용                                                    |
|--------------------------------------|----------------------------------------------------------|
| 쓰레기 문제에<br>관한 인식                     | 1.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
|                                      | 2. 제주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 3. 평소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은 잘하고 있는가?                           |
|                                      | 4.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가?                            |
|                                      | 5. 재활용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
| 재활용품 요일별<br>배출제에 대한<br>인식 및 시행<br>실태 |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
|                                      | 2. 요일별 분리 배출 품목에 대해 알고 있는가?                              |
|                                      | 3. 요일별 분리 배출 시간대를 알고 있는가?                                |
|                                      | 4.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요일별 배출 실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
|                                      | 5. 요일별 배출제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 6.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을 이용해본 소감은 어떠한가?                           |
| 재활용품 요일별<br>배출제에 대한<br>만족도 및<br>유용성  |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만족하는가?                               |
|                                      | 2-1.(①, ②번 선택자)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 2-2.(④, ⑤번 선택자)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 3.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      |                                                          |
|------|----------------------------------------------------------|
|      | 3-1 (④, ⑤번 선택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 4. 요일별 배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 개선방안 | 1. 요일별 배출제의 성공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 2.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      | 3.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      | 4. 배출 시간대를 조정한다면 어느 시간대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가?           |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쓰레기 문제에 관한 인식

###### 1)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상황

<표 3> 제주도 쓰레기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            |           |
|------------|-----------|
| 매우 심각하다    | 79(28.7)  |
| 심각하다       | 162(58.9) |
| 심각하지 않다    | 28(10.2)  |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6(2.2)    |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이 87.6%(241명)였다. 읍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말해주는 결과라 본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를 최대 현안 중의 하나로 다뤄나가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 2) 쓰레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건

**<표 4> 제주도 쓰레기 문제 해결에 가장 먼저 필요한 요건**

(단위: 명, %)

|                       |          |
|-----------------------|----------|
| 시민들의 의식 개선            | 98(35.6) |
| 요일별 배출제의 빠른 정착        | 35(12.7) |
| 관광객 환경세 부과            | 64(23.3) |
| 제주도의 인구 및 관광객 규모 축소   | 20(7.3)  |
| 더 많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확충 | 24(8.7)  |
| 쓰레기 감량 교육의 강화         | 32(11.6) |
| 기타                    | 2(0.7)   |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대해선 시민들의 의식 개선(35.6%), 관광객 환경세 부과(23.3%), 요일별 배출제의 빠른 정착(12.7%), 쓰레기 감량 교육의 강화(11.6%) 순으로 응답하였다. 시민들의 의식 개선, 요일별 배출제의 정착, 쓰레기 감량 교육 등의 항목에 약 60%의 반응을 보인 것은 쓰레기 관련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관광객 환경세 부과에 응답한 23.3%의 반응은 제주의 쓰레기 발생 원인이 관광객에도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 3) 쓰레기 분리 배출 실태

**<표 5> 가정에서의 쓰레기 분리 배출 실태**

(단위: 명, %)

|            |           |
|------------|-----------|
| 매우 잘한다     | 71(25.8)  |
| 잘한다        | 168(61.1) |
| 잘하지 않는다    | 33(12.0)  |
| 전혀 잘하지 않는다 | 3(1.1)    |

평소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6.9%(239명)가 잘 하거나 매우 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그동안 시행해온 분리 배출제도가 일정 부분 정착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 4)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과정

&lt;표 6&gt;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명, %)

|          |           |
|----------|-----------|
| 잘 알고 있다  | 47(17.1)  |
| 알고 있다    | 127(46.2) |
| 잘 모른다    | 85(30.9)  |
| 전혀 잘 모른다 | 16(5.8)   |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63.3%(174명)가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은 36.7%(101명)였다.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면 수거차량이 수거하여 매립장으로 옮기는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질문은 이 수준을 넘어서 매립장으로 옮겨진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잘 모른다는 반응이 36.7%인 것은 이 부분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5) 재활용품의 최종적 처리 방식

&lt;표 7&gt; 재활용품의 재활용 처리방식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명, %)

|          |           |
|----------|-----------|
| 잘 알고 있다  | 19(6.9)   |
| 알고 있다    | 105(38.2) |
| 잘 모른다    | 133(48.4) |
| 전혀 잘 모른다 | 18(6.5)   |

우리가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품이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알고 있다는 반응이 45.1%(124명)인 반면, 잘 모른다는 반응이 54.9%(151명)였다. 우리가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고 있고, 환경문제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안다면 분리 배출에 더 많은 정성을 쏟을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잘 모른다는 반응이 많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환경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인식 및 시행 실태

###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인지

**<표 8>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명, %)

|          |           |
|----------|-----------|
| 잘 알고 있다  | 91(33.1)  |
| 알고 있다    | 151(54.9) |
| 잘 모른다    | 30(10.9)  |
| 전혀 잘 모른다 | 3(1.1)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관해 알고 있다는 반응이 88%(242명)였다.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째를 맞으면서 그 동안 관에서의 계도 및 홍보 효과가 큰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요일별 배출 품목

**<표 9> 요일별 배출 품목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명, %)

|          |           |
|----------|-----------|
| 잘 알고 있다  | 82(29.8)  |
| 알고 있다    | 154(56.0) |
| 잘 모른다    | 36(13.1)  |
| 전혀 잘 모른다 | 3(1.1)    |

요일별 분리 배출 품목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선 알고 있다는 반응이 85.8%(236명), 잘 모른다는 반응이 14.2%(39명)였다. 이는 요일별 배출 품목을 조정한 효과로 보인다. 제주도는 요일별 배출 품목이 복잡하여 암기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수용하여 2018년 4월 1일자로 격일 배출 품목과 매일 배출 품목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정 발표가 요일별 배출 품목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 3) 요일별 분리 배출 시간대

**<표 10> 요일별 분리 배출 시간대 인지 정도**

(단위: 명, %)

|          |           |
|----------|-----------|
| 잘 알고 있다  | 79(28.7)  |
| 알고 있다    | 149(54.2) |
| 잘 모른다    | 50(18.2)  |
| 전혀 잘 모른다 | 4(1.5)    |

분리 배출 시간대에 관해선 알고 있다는 반응이 82.9%(228명), 잘 모른다는 반응이 19.6%(54명)였다. 이 또한 제주도의 계도와 홍보 노력 효과로 판단되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로 해석된다.

#### 4) 요일별 배출 실태

<표 11> 지역주민의 요일별 배출 실태

(단위: 명, %)

|             |           |
|-------------|-----------|
| 매우 잘 되고 있다  | 14(5.1)   |
| 잘 되고 있다     | 129(46.9) |
| 잘 안 되고 있다   | 126(45.8) |
| 전혀 안 되고 있다. | 6(2.2)    |

거주 지역의 요일별 배출 실태는 어떤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이 52.0%(143명), 잘 안 되고 있다는 응답이 48.0%(132명)였다. 요일별 배출 품목과 시간대에 관해선 대부분이 알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보였으나, 실질적 실행 실태에 대해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물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요일별 배출제는 실행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선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5) 요일별 배출제 실행이 부진한 이유

<표 12> 요일별 배출제 실행이 잘 안 되는 이유

(단위: 명, %)

|           |           |
|-----------|-----------|
| 주민의식 부족   | 103(37.5) |
| 잘 몰라서     | 67(24.4)  |
| 복잡한 배출 품목 | 80(29.1)  |
| 멀어서       | 19(6.9)   |
| 기타        | 6(2.2)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해선 ‘주민의식 부족’ 37.5%(103명), ‘복잡한 배출 품목’ 29.1%(80명), ‘잘 몰라서’ 24.4%(67명), ‘멀어서’ 6.9%(1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민의식 부족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로도 지적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 6)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 이용 소감

**<표 13>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을 이용해본 소감**

(단위: 명, %)

|               |           |
|---------------|-----------|
| 관리가 잘 되어 깨끗하다 | 54(19.6)  |
| 비교적 편리하다      | 105(38.2) |
| 멀어서 불편하다      | 61(22.2)  |
| 악취가 나고 불결하다   | 44(16.0)  |
| 기타            | 11(4.0)   |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을 이용해본 소감을 묻는 설문에는 ‘편리하다’ 38.2%(105명), ‘멀어서 불편하다’ 22.2%(61명), ‘관리가 잘 되어 깨끗하다’ 19.6%(54명), ‘악취가 나고 불결하다’ 16.0%(44명) 순으로 나타났다. 편리함과 더불어 깨끗하다는 긍정적 평가에 57.8%(159명)가 반응한 것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나름대로 성공한 정책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불편하다’와 ‘악취가 나고 불결하다’는 반응도 38.2%(105명)가 나온 것은 이 제도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만족도 및 유용성

###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만족도

**<표 14>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

(단위: 명, %)

|           |           |
|-----------|-----------|
| 매우 만족한다   | 24(8.7)   |
| 만족한다      | 133(48.4) |
| 불만족스럽다    | 111(40.4) |
| 매우 불만족스럽다 | 7(2.5)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는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다는 반응에 57.1%(157명),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다는 반응에 42.9%(118명)가 답하였다. 과반수 주민들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다행이나 아직도 많은 수의 주민들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이 제도에 여전히 어떠한 문제점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만족하는 이유(‘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에 응답한 대상자)

<표 15>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

|                        |          |
|------------------------|----------|
|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되어서   | 16(10.2) |
| 시행 전보다 클린하우스가 깨끗해져서    | 69(43.9) |
| 시행 전보다 수거되는 재활용품이 증가해서 | 17(10.8) |
|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돼서  | 40(25.5) |
| 거리의 미관이 깨끗해져서          | 14(8.9)  |
| 기타                     | 1(0.6)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관해 만족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클린하우스가 깨끗해져서’ 43.9%(69명),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돼서’ 25.5%(40명), ‘시행 전보다 수거되는 재활용품이 증가해서’ 10.8%(17명),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돼서’ 10.2%(16명), ‘거리의 미관이 깨끗해져서’ 8.9%(1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가장 만족스런 효과는 ‘청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까지 초래했다는 것은 이 제도의 지속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3) 만족하지 않는 이유(‘불만족스럽거나 매우 불만족스럽다’에 응답한 대상자)

<표 16>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불만족스러운 이유

(단위: 명, %)

|                    |          |
|--------------------|----------|
| 요일별 배출 품목 암기가 어려워서 | 8(10.8)  |
| 가정 내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 27(36.5) |
| CCTV 감시가 부담돼서      | 3(4.1)   |
| 번거롭고 귀찮아서          | 17(23.0) |
| 배출 시간의 제한 때문에      | 16(21.6) |
| 기타                 | 3(4.1)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가정 내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36.5%(27명), ‘번거롭고 귀찮아서’ 23.0%(17명), ‘배출 시간의 제한 때문에’ 21.6%(1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정 내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는 이 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재활용도움센터’이다. 이 문제는 도움센터가 더 증설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배출 시간대 문제 역시 예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여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표 17>에서 보

다시피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다는 반응에 응답한 자가 42.9%(118명)였으나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그들 중 일부인 74명만이 설문에 응했음을 밝힌다.

#### 4)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영향

**<표 17>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 쓰레기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                |           |
|----------------|-----------|
|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50(18.2)  |
| 조금 도움이 되고 있다   | 118(42.9) |
| 그저 그렇다         | 86(31.3)  |
| 도움이 안 되고 있다    | 14(5.1)   |
|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 7(2.5)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에 61.1%(158명), ‘그저 그렇다’에 31.3%(86명), ‘도움이 안 되고 있다’에 7.6%(21명)가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거나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38.6%)에 비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높은 것은 이 제도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름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 5) 도움이 안 되는 이유(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표 18>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

(단위: 명, %)

|                     |          |
|---------------------|----------|
| 관광객의 쓰레기가 넘쳐나서      | 9(23.7)  |
| 쓰레기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서    | 14(36.8) |
| 홍보가 부족해서            | 2(5.3)   |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해서 | 10(26.3) |
| 인구가 너무 불어나서         | 3(7.9)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상대로 그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쓰레기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서’ 36.8%(14명),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해서’ 26.3%(10명), ‘관광객의 쓰레기가 넘쳐나서’ 23.7%(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배출이다. 요일별 배출제가 성공적이라 해도 이것이 쓰레기의 총량에는 어떠한 변화를 초

래할 수 없기에 쓰레기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과잉배출에는 불어난 관광객의 탓도 큰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6)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필요성

<표 19>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필요성

(단위: 명, %)

|            |           |
|------------|-----------|
| 꼭 필요하다     | 53(19.3)  |
| 필요하다       | 153(55.6) |
| 필요하지 않다    | 63(22.9)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6(2.2)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는 ‘필요하다’가 74.9%(206명), ‘필요하지 않다’가 25.1%(69명)의 반응을 보였다. 다수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 및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4. 개선방안

####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성공을 위한 요소

<표 20>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성공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요건

(단위: 명, %)

|                                    |          |
|------------------------------------|----------|
| 배출제도의 필요성 홍보                       | 82(29.8) |
| 한림읍과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참여 자세 독려 | 88(32.0) |
| 배출 시간대 조정                          | 71(25.8) |
| 흰색 종량제 봉투 사용의 강화                   | 29(10.5) |
| 기타                                 | 5(1.8)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한림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요건을 묻는 설문에 대해선 ‘한림읍과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참여 자세 독려’ 32.0%(88명), ‘배출제의 필요성 홍보’ 29.8%(82명), ‘배출 시간대 조정’ 25.8%(71명), ‘흰색 종량제 봉투 사용의 강화’ 10.5%(2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요일별 배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참여 자세를 독려하거나 이 제도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주체가 관인 만큼 앞으로 한림읍에서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홍보 방식

<표 2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식

|                        |           |
|------------------------|-----------|
|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활용   | 99(36.0)  |
| 인터넷 활용                 | 22(8.0)   |
| 마을마다 플래카드 설치 및 홍보자료 활용 | 112(40.7) |
| 교육 및 견학                | 35(12.7)  |
| 기타                     | 7(2.5)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을 묻는 설문에는 ‘마을마다 플래카드 설치 및 홍보자료 활용’ 40.7%(112명), ‘대중매체 활용’ 36.0%(99명), ‘교육 및 견학’ 12.7%(35명), ‘인터넷 활용’ 8.0%(2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림읍에는 고령자들이 많은 만큼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주민 참여 유도 방안

<표 22>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단위: 명, %)

|                                        |          |
|----------------------------------------|----------|
| 담당 공무원의 정기적인 마을 방문 및 참여 독려             | 53(19.3) |
| 한림읍에서 우수 마을 지정하여 표창하기                  | 89(32.4) |
| 한림읍에서 정기적인 쓰레기 배출 관련 교육 실시             | 89(32.4) |
| 요일별 배출제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타 지역의 사례 소개 | 35(12.7) |
| 기타                                     | 9(3.3)   |

요일별 배출제에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설문에는 ‘한림읍에서 우수 마을 지정하여 표창하기’ 32.4%(89명), ‘한림읍에서 정기적인 쓰레기 배출 관련 교육 실시’ 32.4%(89명), ‘담당 공무원의 정기적인 마을 방문 및 참여 독려’ 19.3%(53명), ‘요일별 배출제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타 지역의 사례 소개’ 12.7%(3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우수 마을을 지정하여 표창하거나 정기적인 쓰레기 배출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4) 배출 시간대 조정 방안

&lt;표 23&gt; 배출 시간대 조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

(단위: 명, %)

|                |          |
|----------------|----------|
|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 69(25.1) |
|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 40(14.5) |
| 오후 1시부터 새벽 2시  | 62(22.5) |
|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  | 75(27.3) |
| 기타             | 29(10.5) |

요일별 배출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요건으로 배출 시간대 조정이 있었던 바 이에 관하여 설문해보았다. 그 결과는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 27.3%(75명),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25.1%(69명), ‘오후 1시부터 새벽 2시’ 22.5%(62명),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14.5%(4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현행 배출 시간대에 가장 많은 반응이 나온 것은 그 동안 이 제도가 시행돼오는 가운데 이미 여기에 적응됐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는 시간대 조정을 원하는 만큼 이에 대해선 별도의 광역적 여론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V. 종합적 논의

한림읍민 대다수는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한림읍민 뿐만 아니라 아마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바일 것이다. 쓰레기난, 교통난, 묻지마식 개발난, 이른바 3난이라 불리는 문제가 최근 들어 제주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난관들이기 때문이다. 한림읍민들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건으로는 도민의식 개선과 관광객 환경세 부과를 꼽은 것을 보면 도민의식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치가 요구돼 보이며, 환경세 부과 방안도 다시금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한림읍민들 중에는 자신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 이는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다. 우리가 애써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묻지마식 분리 배출 행위와 내가 왜 분리 배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각하고 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가 맹목적·타율적이라면 후자는 합리적·자율적이다. 합리적·자율적 행위야말로

로 일관적이면서 안정적인 태도를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이론적 교육보다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림읍민들은 요일별 배출제는 물론 배출 품목 및 배출 시간대에 대해서도 대부분 알고 있었다.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이뤄진 홍보와 계도 덕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 실태에 대해선 약 반 정도가 ‘잘 안 되고 있다’에 반응한 것으로 보아 이 제도의 실질적 실행률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요일별 배출제의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로 ‘주민의식 부족’, ‘요일별 복잡한 배출 품목’, ‘잘 몰라서’ 순으로 응답한 것을 볼 때, 이 또한 요일별 배출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 물음에서부터 주도면밀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로 여겨진다.

요일별 배출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가 57.1%, 불만족한다가 42.9%라는 결과가 나왔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읍민들은 그 이유로 ‘시행 전보다 클린하우스가 깨끗해져서’와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돼서’를 꼽았는데 이는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전의 자유배출제 방식에 비해 차별적인 효과가 분명히 났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한 읍민들은 그 이유로 ‘가정 내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번거롭고 귀찮아서’, ‘배출시간의 제한 때문에’ 순으로 응답하였다. 요일별 배출제가 격일제로 많이 완화되긴 했으나 읍지역 거주민들 중에는 자영업과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아 생업에 바쁜 탓으로 규정에 따라 분리 배출하기가 힘든 점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요일별 배출제의 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읍면지역의 경우는 쓰레기 수거함이 상대적으로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재활용도움센터<sup>5)</sup> 역시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다 해도 한 곳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읍면지역 주민들의 불편·불만 사항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과 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61.1%)이 부정적 반응(38.9%)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요일별 배출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이 74.9%,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이

5) 재활용품을 집안이나 업소에 보관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배출 요일, 시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 이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클린하우스의 악취·미관 저해 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요일별 배출제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재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재활용도움센터는 2019년 현재 제주도 31개소, 서귀포시 24개소 총 5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한림읍에는 ‘한림2리 재활용도움센터’ 한 곳이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보도자료, 2019. 8. 7).

25.1%를 보여 요일별 배출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이들은 그 이유로 ‘쓰레기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부족해서’, ‘관광객의 쓰레기가 많아서’ 순으로 응답하였다. 제주도 쓰레기 대란의 핵심은 과잉배출이다. 요일별 배출제가 성공적이라 해도 이것이 쓰레기의 총량에는 특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으리라 본다. 물론 이 제도를 통해 재활용률은 높아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과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쓰레기의 감량을 위해선 별도의 또 다른 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요일별 배출제의 성공을 위해 한림읍 지역에서 해야 할 가장 우선적 요건들에 대해선 ‘한림읍과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 ‘배출제도의 필요성 홍보’, ‘배출 시간대 조정’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요일별 배출제의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한림읍과 지역주민 간 충분한 의사소통이 부재했음을 말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애초부터 요일별 배출제는 이 제도의 시행을 놓고 행정당국과 도민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결여됐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전형적인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식 방식으로 도민 전체를 밀어붙이려는 전 근대적 절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한림읍에선 지역주민들에게 이 제도의 엄격한 시행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불만 사항들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대민 서비스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림읍민들은 요일별 배출제의 홍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플래카드 설치 및 홍보자료 활용’을 제일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는 아마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거리를 오가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행정당국에서는 요일별 배출제를 홍보할 시 인터넷과 같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방식의 홍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수 마을 지정하여 표창하기’와 ‘한림읍에서 정기적인 쓰레기 배출 관련 교육 실시’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요일별 배출제의 실행 실태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하려면 새로운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해보이며, 특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선 거듭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한 마디로 간추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는 ‘필요하고 유용하긴 하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미완의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의 목적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제주도 한림읍 지역주민의 인식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먼저 지역주민의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쓰레기 문제에 관한 인식’ 측면에서는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상황은 심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의식 개선’, ‘관광객 환경세 부과’, ‘요일별 배출제의 빠른 정착’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쓰레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처리되고 있고, 분리 배출이 쓰레기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반응이 우세하였다.

두 번째는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인식 및 시행 실태’ 측면이다. 요일별 배출 품목이나 배출 시간대에 대한 인지 정도는 높았으나 시행 실태는 보통 수준이었다. 이렇게 실행 실태가 보통 수준에 머무는 이유로는 ‘주민의식 부족’, ‘복잡한 배출 품목’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세 번째는 ‘요일별 배출제의 만족도 및 유용성’ 측면이다.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만족도는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나 불만족스럽다는 반응도 40% 이상 나타났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클린하우스의 청결’, ‘주민들의 인식 변화’, ‘재활용품의 증가’ 순으로 응답하였고,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가정 내 보관 장소 부족’, ‘번거롭고 귀찮음’, ‘배출 시간의 제한’ 순으로 응답하였다.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약 60%였고, ‘그저 그렇거나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은 약 40% 정도였다.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이유로는 ‘쓰레기 총량에는 변화가 없음’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주민의 참여의지 부족’, ‘관광객의 쓰레기 과다’ 등도 그 이유로 들었다.

마지막으로는 ‘요일별 배출제의 개선방안’ 측면이다. 요일별 배출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요소로는 ‘한림읍과 지역주민 간 소통을 통한 참여 자세 독려’와 ‘요일별 배출제의 필요성 홍보’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홍보방식으로는 ‘플래카드 설치 및 홍보자료 활용’과 ‘대중매체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림읍에서의 정기적인 교육’과 ‘우수마을 선정 표창하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정리하면 현행 한림읍에서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몇몇 이점이 있고 따라서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하나 아직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은 미완의

제도라고 진단내릴 수 있다.

이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획기적 방안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한림읍민 대다수는 요일별 배출제의 요일별 배출 품목, 배출 시간대 등에 관해선 잘 알고 있었으나 그 실행 정도는 낮은 편이었다. 요일별 배출제의 성패는 이론적 앎보다 실질적 실행에 달려 있는 만큼 실행률을 끌어올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한림읍민들 중에는 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하는지는 물론 분리 배출한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분리 배출 행위가 자율적·능동적이기보다 타율적·수동적이기 쉽고, 요일별 배출제의 성공적 이행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줄 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데는 주민의 참여 의지 및 주민의식 결여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식 개선은 중대한 과제 중의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는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환경교육이란 단순히 이론적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현장체험 위주의 실천교육을 의미한다.<sup>6)</sup> 분리 배출을 왜 해야 하며, 이것이 왜 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실천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때 주민의식은 서서히 개선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한림읍과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림읍민들은 요일별 배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한림읍과 지역주민 간 소통을 통한 지속적 참여자세 독려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더불어 한림읍민들은 요일별 배출제의 실행률을 제고하려면 한림읍에서 정기적인 쓰레기 배출 관련 교육 실시와 ‘우수마을 선정 표창하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답변들은 한림읍에서의 주도면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한림읍민들의 자율적·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한림읍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기적인 배출 교육은 물론 다양한 동기 유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6)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 독일 환경교육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교육기관 수와 운영주체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교육은 대체로 초·중·고 학생들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가 많지만 독일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환경교육의 60%만이 초·중·고 학교와 연계되어 있고 나머지 40%는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셋째, 독일 환경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환경교육을 다루는 과목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다. 사회, 물리, 화학, 생물 등은 물론이고 종교학, 미술, 정치, 역사, 국어 등에서도 다루며, 교육 내용 자체에 심리적 요소를 가미하여 환경의식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유정수, 2006: 148-149).

셋째는 요일별 배출제를 통해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능사가 되어선 안 되며, 쓰레기 감량 및 재사용 정책에도 동등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요일별 배출제만 성공한다면 폐기물 정책 또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류이고 착각임을 알아야 한다.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하나의 대안에 불과하며 매립 이전의 마지막 방법일 뿐이다. 재활용 이전에 감량과 재사용 정책 또한 비중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재활용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 아무 소용이 없다(유정수, 2006: 68). 재활용률이 높다고 하여 자원순환형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자원순환형 사회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일회용품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재사용 정책 또한 강화해야 한다. 재사용이 왜 중요한지는 페트병의 재활용사례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페트병은 페트병으로 재활용되기보다 커튼, 작업복, 포장용 끈, 인형 등으로 재활용되는 수가 훨씬 더 많다(유정수, 2006: 68).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페트병이 다른 소재로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비용과 환경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재활용정책을 폐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현행 정책 또한 나름의 장점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지속하는 가운데 감량 및 재사용정책 또한 병행 추진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진영, 2017, 『도시 3대 중점분야 개선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 김은수, 2017,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통권 121호, 73-97.
- 김일방, 2019,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공과와 개선방안」, 『환경철학』 제28집, 225-251.
- 드 실기, 카트린, 2014, 『쓰레기, 문명의 그림자』, 이은잔·조은미 옮김, 따비.
- 스트레서, 수전, 2010, 『낭비와 욕망: 쓰레기의 사회사』, 김승진 옮김, 이후.
- 유정수, 2006, 『쓰레기로 보는 세상』, 삼성경제연구소.
- 제주도 환경보전국 보도자료, 2019. 8. 7, 「2019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운영 현황」.
- 제주시 생활환경과 새소식, 2016. 11. 24,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 2017, 『제주 인구변화』, 제주특별자치도.
- \_\_\_\_\_, 2019a, 『2018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_\_\_\_\_, 2019b, 『2018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제주특별자치도.
- \_\_\_\_\_, 2019c, 『2019 주요행정통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 \_\_\_\_\_, 2019d, 『생활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 기초 평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2019. 8. 29, 「2019 제주도 매립장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제주도 매립장의 현황과 과제」.
- 존슨, 비, 2014,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 박미영 옮김, 청림Life.
- 페럴, 제프, 2013, 『도시의 쓰레기 탐색자』, 김영배 옮김, 시대의 창.
- 흙즈, 에드워드, 2013, 『102톤의 물음』, 박준식 옮김, 낮은산.
- Ohmy News, 2016. 12. 23.
- \_\_\_\_\_, 2017. 1. 14.
- \_\_\_\_\_, 2019. 7. 2.
- 뉴스제주, 2018. 6. 1.
- 뉴시스, 2016. 10. 27.
- 연합뉴스, 2018. 12. 1.
- 제주의 소리, 2016. 8. 31.
- \_\_\_\_\_, 2017. 1. 6.
- \_\_\_\_\_, 2017. 3. 6.
- \_\_\_\_\_, 2017. 6. 29.
- \_\_\_\_\_, 2017. 12. 20.
- \_\_\_\_\_, 2017. 3. 22.
- 한림읍행정복지센터 <http://www.jejusi.go.kr/town/hanlim.do>(2018년 8월 검색).
- 헤드라인제주, 2018. 12. 18.

Abstract

The Residents' Perception and Improvement Ways of the 'Recyclable Waste Emission System by Day of the Week' : Focusing on the Case of Hanlim-eup, Jeju

Kim, Il-Bang<sup>\*</su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sidents' perception and improvement ways of 'Recyclable Waste Emission System by Day of the Week' in Hanlim-eup, Jeju-si, Jeju-do. The research subjects of this paper are residents of Hanlim-eup, and the research method is questionnaire method. The SPSS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was applied to analyze the responses obtained from the questionnaire,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by this applic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could evaluate the current 'Recyclable Waste Emission System' as an unfinished system which is necessary and useful to us but still has a lot to supplement. As an alternative to supplementing and improving this system, I have suggested three things. First, groundbreaking measure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consciousness of the residents, and the first of these measures is practical environmental education. Second,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Hanlim-eup and local residents is required. Furthermore, Hanlim-eup should not only conduct regular waste separation emission education, but also motivate resi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ecyclable Waste Emission System by Day of the Week'. Third, Hanlim-eup should be freed from putting waste policy only in recycling. In other words, Hanlim-eup should pursue a policy to reduce and reuse waste along with the waste recycling policy.

**Key Words :** 'Recyclable Waste Emission System by Day of the Week', environmental education, the consciousness of the residents, recycling, reduction and reuse.

교신 : 김일방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E-mail: heracles@jejunu.ac.kr)

논문투고일 : 2020. 01. 15

심사완료일 : 2020. 02. 10

게재확정일 : 2020. 02. 10